

오피니언

다산포럼

송재소



이헌조(李憲祖) 회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의 하나인 LG그룹의 회장을 역임한 전형적인 CEO이다. 이 분이 최근 사재(私財) 70억 원을 회사했다. 한 개인이 70억이라는 거액을 회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기업경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순수 학술단체에 회사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

이 회장이 회사한 학술단체는 국학계의 원로인 이우성(李佑成) 선생이 성균관대학교에서 정년퇴직 한 후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연구실을 열어 후학을 지도하고 있는 그야말로 구멍가게 수준의 초라한 단체이다.

‘실시학사(實學學舍)’라는 이름의 이 연구실에 이 회장은 한국실학연구(韓國實學研究)에 써달라며 70억을 아무런 조건 없이 회사한 것이다. 그래서 거액을 기탁받은 실시학사는 ‘재단법인 실시학사’를 설립하여 한국실학연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고도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이 회장을 굳이

거론하는 이유는, 작금의 우리나라 학문 풍조와 교육제도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더 이상 학문을 연마하는 상아탑이 아니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맞춤형 인재’를 요구하고 대학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인재만으로 되나

당국은 이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취업에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기초학문을 외면하고, 학교 당국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기초학문의 ‘공급’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지식을 팔고 사는 ‘시장 교육’의 장(場)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교육은 시장 경제의 지배로부터

한걸음 비켜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학생이 원하지 않더라도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쳐야 한다. 이른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한답시고 모든 대학에서 필수과목을 폐지한 것도 교육의 정도가 아니라고 본다.

기업의 경영자들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면 그에 맞게 직업학교나 기술학교를 설립하면 된다.

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인재만을 요구하는 기업 경영자들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

대학에서 철학, 경제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기초학문을 확실히 공부한 학

생이라면 당장 써먹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회사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답답할 뿐이다.

눈앞의 실용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큰 것을 놓치게 마련이다.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교육의 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학문의 경우는 느긋하게 기다려야만 그 결실을 볼 수 있다.

일본이 1949년 이래 14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노벨 과학상은 대부분 기초과학 분야에서 수상자가 결정된다. 일본은 GDP 대비 2% 선의 연구개발비를 꾸준히 투자한다고 한다. 금방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투자한 결과가 14명이라는 수상자를 배출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헌조 회장만 하더라도 그는 철학과 출신이다. 또한 한학(漢學)에도 상당한 식견이 있어 한시(漢詩)를 창작할 정도로 조예가 깊다. 이런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기에 LG라는 대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을 것이다.

누구보다 기업 경영의 현실을 잘 알고 있을 이 회장이 순수 인문학 분야인 한국실학연구에 70억 원을 투자한 데에는 그분 나름의 깊은 철학이 있었을 것이고 그 철학을 우리는 매우 존경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가 학술 진흥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 회장의 이러한 철학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기를 기대해 본다.

〈성균관대 명예교수·전통문화연구회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정국 급랭’ 예산국회 또 파행되나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검찰이 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 등 20여 곳을 지난 5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하면서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국회 말살이 자 아담탄압이라며 총력 대응에 나섰고, 한나라당조차도 신중치 못한 과잉 수사라며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금명간 청목회 후원금 불법수수 관련자들을 소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치권과 검찰이 마치 서로 마주 보면 달리는 열차처럼 죽기살기로 나서고 있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우리는 검찰의 청목회 수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 국회의원도 법 앞에서 평등하며 비리가 드러나면 그 대상이 누구라 할지라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G20 회의와 예산국회를 코앞에 두고 꼭 이런 식의 수사를 했

어야 하는 점에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중이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내년 예산안 심의는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다. 검찰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 불러온 정국경색으로 이미 내년 예산안의 회기 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형승퍼마켓(SSM) 규제법안, 한·미 FTA 비준안,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동의안 처리 등 다른 긴급 현안 처리도 힘들게 됐다. 정치권과 검찰의 싸움에 국민만 등이 터지게 된 셈이다.

두 집단은 이성과 냉정함을 되찾아야 한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정치권 또한 예산심의나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치도, 검찰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카보 ‘임원’ 도민 혈세로 역대 연봉 쟁기다

F1대회 운영법인인 카보(KAVO)가 자본금이 바다난 상황에서도 임원들에게 역대가 넘는 연봉을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카보의 자본금 가운데 43.8%를 전남도가 도민의 혈세로 투자한 사실을 감안하면 그들의 ‘돈 잔치’에 분노마저 치민다.

전남도에 따르면 당초 100억 원에 불과했던 카보의 자본금은 지난 2008년 전남도와 금융권 등의 참여로 지분구조가 개편되면서 600억 원으로 늘었다고 한다. 전남도·전남개발공사(263억원·43.8%)와 SK건설(148억원·24.6%), MBH(102억·17.0%), 신한은행(40억 원·6.6%), 농협(40억원) 등이 투자하면서 자본금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카보는 그러나 경주장 공사 일부 대금 등으로 550억 원을 지급해 실제 잔액은 50억 원으로 줄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카보 측은 당초 10명이던 직원을 40명으로 대폭 늘리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근이사 3명과 본부장 등에게 임금과

수당을 합쳐 각각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해온 것이다. 정영조 카보 대표는 2억 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보 측의 이러한 작태는 무엇보다 제동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 개편권을 쥐고 있는데다 경주장 공사에서 대회 운영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하거나 감독할 기관은 없다. 전남도가 임금을 낮추라고 요구했음에도 카보가 번번히 묵살해온 사실만으로도 좌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남도는 카보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로서 이를 감독하고 통제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임금 조정은 물론 운영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카보 역시 F1대회를 영랑으로 치르고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 연봉을 받아도 되는지 묻고 싶다. 도민의 혈세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

NGO 칼럼

이명선



도심 속 마을 꾸미기 프로젝트는 낙후한 광주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젝트다.

공부 이외에 특별한 경험을 하기 힘든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체험도 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한 끝에 도심 꾸미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벽화 그리기, 솟대 만들기, 마을 팻말 만들기 등 도심을 아름답게 꾸미어 나가기 위한 활동에 청소년들이 직접 나섰다.

이중 가장 많은 호응이 있었던 활동은 벽화 그리기 활동이었다. 8~10명의

움을 멘토해주며, 응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7월부터 시작한 도심 속 마을 꾸미기 프로젝트는 평동의 농촌마을, 북구, 남구 낙후한 동네 등에서 8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참여했던 청소년들만 300여 명이 넘는다. 참여하는 학생들마다 보람과 뿌듯함을 얻어 가는 것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목말라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다.

수는 성적 전국 1위라는 타이틀은 그동안 광주 교육계에서는 자랑으로 내세우는 이야기거리였다. 임시 결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현실상 이런 결과를

도심속 벽화 그리기 청소년들이 나섰다

아이들이 한 조가 되어 직접 기획을 하고, 역할을 나누고, 그림 그리기에서 페인트칠까지 모든 작업을 스스로 진행한다. 5시간 이상을 작업을 해야 함에도 아이들은 지루한 기색 없이 그림 그리기에 몰두한다. 평소 공부 이외에 다른 체험을 해볼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벽화 그리기를 끝낸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다는 게 어렵게 느껴졌지만, 창작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어 뿌듯하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배운 것 같다”고 말하곤 한다.

아이들의 이런 소감에는 도심 꾸미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이 뒷받침됐다. 청소년 지도사들은 각기 다른 학교에서 모이는 아이들의 어색함을 풀어주기 위해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레크리에이션으로 긴장을 풀어주고, 아이들의 어려

남까지 청소년들의 삶은 공부와 성적과 관련된 일상으로 꽉꽉 들어차 있다. 그만큼 공부와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고,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타이틀 또한 얻게 됐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달려가는 청소년들에게 영어단어, 수학공식을 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회를 알아가고 배워나가는 길이다. 아이들에게는 원리를 짚고 갈 여유와 생각의 폭을 넓혀갈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하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회에 나아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자아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어른들이 해야 하며, 이는 청소년 지도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된다. 희망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른들은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어른들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광주지부 간사〉

길거리 불법 플래카드 운전자 시선 분산 사고 위험

며칠 전 교차로에서 직진신호가 들어왔는데도 앞 차량이 진행을 하지 않아 운전자를 쳐다보니 길거리 불법 플래카드를 보고 있었다. 그 플래카드의 내용을 봤더니 새로 개업한 나이트클럽 홍보 내용이었다.

최근 플래카드를 지정한 곳에 부착하도록 되면서 보기에도 깔끔하고 도시의 거리 미관 조성에도 일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내 곳곳에 불법으로 부착된 플래카드들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주로 안마사술소, 국제결혼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들이 대부분이다.

누구나 한번쯤 차를 운전하면서 그 현수막을 쳐다보느라 전방주시에서 소홀해 신호등을 제대로 못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플래카드들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홍보 플래카드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고, 관계기관도 불법으로 설치된 플래카드를 철저히 단속해 도시미관을 정화하는데 적극 나서야겠다.

▲이선화·광주시 서구 마북동

기고

박광호



G20 개최가 이제 며칠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G20 회의 개최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30조 원, 그 홍보효과는 월드컵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수치로 환산되는 이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긍지와 국가적 자부심이다.

정부는 이번 행사가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요 의제는 환율 갈등문제, IMF 개혁, 개발 의제(개발도상국들의 성장을

있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할 것이다.

그 사례로 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시작된 세계 쌀 올림픽인 ‘세계 쌀대회(International Rice Congress)’에서 발표되는 ‘한국 신 농업기술의 베트남 성공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연구기관(IRRI)의 현지 검증을 거쳐 수천 년 내려온 관행농법에 한국 신기술을 도입한 결과 물, 에너지절감 뿐만 아니라 9% 수확량 증가, 작업량(노동력) 60~75% 절감, 농약살포 1~2회 생략, 투입비 27% 절감, 경제성 187% 성과를 얻어 전국적인 보급을 추

G20 회의와 개발 의제

돌는 문제) 등으로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가 G20이후 지속적으로 실속을 차리면서 주도할 수 있는 의제(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아프리카 등 빈국의 개발도상국 지원이며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 즉 식량부족문제에 중심이 될 것이다.

먹는 일은 동서고금을 통해 전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이며 가장 절박한 문제이고, 기아로 고통받는 빈민부터 통치자까지 가장 이슈가 되는 의제이기 때문이다.

이 분야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구증가·기후변화보다 대량 곡물소비에 대해 더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신흥 경제국들(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우리가 지난 산업화과정에서 그래왔듯이 식량 및 유류·유제품 수요급증의 블랙홀이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G20국들의 의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과거 일회성, ‘고기를 잡아주는’ 지원 방식은 또 다른 의타심만 가져오게 할 것이며 빈국들의 부패 고리를 만들게 할 것이다.

그 대안은 개도국 스스로 자립할 수

진하고 있는 사례다. 이미 방글라데시, 미얀마, 카메룬(아프리카), 쿠바(중미), 북한, 중국 등 23개국에서 호응을 받으면서 보급되고 있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농업은 모든 인류의 어머니이며 마음의 고향이다. 어머니의 마음을 적시고 가슴을 열어야 모든 일이 누에가 실타래를 풀듯이 저절로 주단이 펼쳐질 것이다.

모두가 행복해 하는 지구촌 평화도 온누리에 구석구석 골고루 심어 질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코리아 이니셔티브일 것이다.

5000년 역사 속에 처음으로 세계 선진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모두 모여 지구촌 핫이슈를 논의하게 된다.

서방 선진국 방식과는 다른 차별화된 한국형 노하우를 가지고 가장 근원적인 먹는 문제로 단추를 끼우려 할 때 앞으로 세계사에 길이 남는 의장국으로서 전 인류가 공감하는 한마음 글로벌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농수산대학 교수·식량작물학〉

無等鼓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보낸 7개월이었다. 선원 24명과 1억7000만달러(1880억원 상당)어치의 원유를 싣고 이라크에서 미국으로 가던 샴호드림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지 216일만인 지난 6일 마침내 석방됐다.

샴호드림호 선장은 광주 출신 김성규 씨. 그의 동창들은 그를 매우 성실한 친구로 기억하고 있었다. 김 선장을 포함

하고 있지만 파벌들 간의 반목이 워낙 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무장세력이 해적으로 변신해 전 세계 선박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샴호드림호의 석방에 막대한 돈이 해결사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로이터 통신은 “950만달러(약 105억원)의 몸값이 지급됐다”고 보도

해 석방조건이 만만치 않았음을 증명했다. 샴호드림호 납치 후 즉각 우리 정부는 청해부대 소속 중무공이순신함을 급파했

나 해적들이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바람에 사태가 장기화됐다. 우선 20여명의 목숨이 위태로웠고 해적들이 유조선을 폭파라도 한다면 대규모 환경재앙을 불러올 수 있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한 것이다.

한편 10일에는 유엔본부에서 해적 퇴치를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우주를 정복한 인류가 해적의 농간에 놀아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박경직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소말리아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내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다 시 진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